

보도일시 (인터넷) 2024. 7. 30.(화) 11:00,  
(지면) 2024. 7. 31.(수) 조간

배포 2024. 7. 30.(화) 06:00

## 대출이자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 최대 연 2%, 외항선사는 최대 4천만원, 내항선사는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해수부 차관, 중소기업 대상 간담회를 통해 지원사업 소개 및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7월 31일(수)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사업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4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8월부터 중소기업은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최대 연 2%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동 사업을 통해 외항선사는 연간 최대 4천만원까지, 내항선사는 최대 2천만원까지 이자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선박금융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중소기업,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내항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예정이거나, 도입을 완료한 외항선사이며, 지원기간은 최초 대출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되며,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지현 (044-200-5710)
		담당자	사무관	김선하 (044-200-5716)